

마지막 때의 가족

아리엘 블루멘탈

최근 스위스에서 있었던 (10월 25~28일, 뮌헨에서 열릴 국제적 모임을 위한) 리더십 “사전모임”에서 저희는 지금의 청년 세대를 위해 깊은 산고의 종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소셜 미디어 및 기술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그 어느 세대보다 더한 외로움과 소외감을—더 못한 “가정” 때문에—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두 성경구절이 갑자기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3:1-5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바울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은 이 모든 악한 행위에 빠지지 않고 작은 천사들 같았나요? 이것은 단지 미래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죠?” 아니요, 바울 시대에도 많은 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통적인 사회는 절대적인 도덕기준과 금기가 있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바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최소한 이론상으로라도) 이런 악의 목록이 정말로 악의 목록이라고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적 경고는 이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이 “정상적”이 되는 때, 사람들과 그들의 사회적 기준이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거역? 동성 결혼? 당연한 것 아냐! 이것이 우리 ‘인간성’이지. 이것이 자유사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이지. 이게 뭐가 잘못된 건데!?”라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저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그 때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돈 사랑(긴 목룩의 처음 두 가지)은 전 세계 어마어마한 인구에게 도덕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동성 결혼을 수용하는 믿기 어려운 사조도 유사한 징조입니다.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것보다 더 큰 자기 사랑, 가족 및 부모(그분들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선물을 받은)에 대한 불순종 행위는 없습니다.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것은 자녀 출산과 양육을 통한 생명 존속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이 존재하도록 의도하신 모든 것이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회복의 약속

보라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 (말 4:5-6)

이 구절이 성령님께서 저에게 자극을 주신 두 번째 구절이었는데요, 이 구절은 디

모데후서 2장을 먼저 깨달아야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가족이 붕괴되는 일이 없다면, 어쩌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의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려고 와야 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녀에게 향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그 아버지에게 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일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부모보다 더 파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녀보다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적이며 앞서 달려가는 여호와의 (엘리야의) 영이 예수아의 재림 전 세대에 큰 역사—진정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지난 달 스위스에서 산고의 중보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수록, 저는 제가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낳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자연적이고 영적인 가정—그 중심에 메시아의 희생적 사랑이 있는—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신실함

이 비디오에서 아세르는 신실함 테스트에 대해 가르칩니다. 모든 상황은 우리 자신에게 신실함을 보여주고, 앞으로 올 시대에 축복을 풀어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https://youtu.be/Gisfe3PWJoE>

회복 컨퍼런스 소식

벤 저스터

지난주에 티쿤 아메리카 네트워크는 제33회 연례 리더십 및 주말 컨퍼런스를 주최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리더십을 나눠 주고, 관계를 돈독히 하며, 예언적 통찰에 있어서 중대한 것입니다. **회복 컨퍼런스**라고 새롭게 명명된 티쿤 공동체는 5중 사역이 실제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125명이 넘는 상급 리더들과 장로들과 사역 담당자들이 예배와 가르침과 논의의 친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 모였습니다. 강사는 아세르 인트레이터, 댄 저스터, 특별 손님 체 안 목사, 제이슨 소벨 랍비 등이었습니다. 아세르는 메시아닉 공동체에게 국제적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모든 민족에 축복”(Genesis 12:2-3)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속명을 이루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겸손은 하나 됨으로 가는 길을 닦습니다. 그런 다음 단합된 회개와 중보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주말 **회복 컨퍼런스**에는 400명이 넘는 티쿤 회원 및 친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참

석자들은 폴 윌버와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기”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체 안이 축복과 결실을 불러오는 10개 선언을 선포하면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댄 저스터는 안식일 오전에 이스라엘과 열방의 서로 연관된 예언적 숙명과, 이스라엘과 결합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아세르가 영적 줄맞춤과 부상하는 사도적 리더십에 대해 고무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이슨 소벨은 앞으로 있을 새로운 제자들 추수를 받으려면 우리의 관계망을 강건히 하라는 촉구로 컨퍼런스를 폐회했습니다.

제자들이 실제로는 팔레스타인인이었다고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와 그것의 성경과의 관련성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 론 칸토르와 함께 해 보십시오.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https://youtu.be/pOgrH15ht4I>

열방 축제

2015년 6월 13일에 우리 팀 지체 중 네 명(유발, 탈, 예레미야, 로니)이 우리 아랍 동역자 한 명과 함께 철야 예배 및 기도회에 참석하러 예루살렘에서 스위스 제네바

로 갈 것입니다. 이들은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예배를 인도하고, 중동을 위한 기도를 인도할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에 들어가 보십시오. www.fetedesnations.com.

[ch](#)